

중앙SUNDAY-아산정책연구원 공동기획 한국문화대탐사 ⑦ 한지

1000년 수명 한지를 청와대 선물 속지로 쓰고 버리는 우리

안성규 기자, 이승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보미 아산정책연구원 인턴
askme@joongang.co.kr

‘지(紙) 천년 건(綱) 오백 년’. 종이는 천년 가고 비단은 오백 년 간다. 한지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말이다. 2007년 2월 당시 김명곤 문화부 장관이 ‘한(韓)브랜드화’ 6대 품목을 발표하면서 한글·한식·한복·한옥·한국 음악에 한지를 포함한 것은 이런 장점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이었다. 그 뒤 7년, 상황은 어떤가.

“나는 한지, 은은하고 조용할 뿐이다. 이 땅의 모든 이가 내 보살핌을 받았다. 한지 장판 위에서 태어나 창호지와 벽지 속에서 살았다. 한지로 만든 책을 읽고, 한지 위에 글을 써서 벼슬을 했다. 한지에 쓰인 어명은 생사를 갈랐다. 몇 겹 한지로 만든 갑옷은 화살도 막아냈다. 한지에 쓰인 불경은 광화를 진달했고 내면을 가다듬었다. 나로 만든 저화(儲貨)나 나무종이로 만든 지폐(紙幣)가 많았음 부자였다.

책장·장승·함반진고라·부채 같은 생활용품에도 나는 필요했다. 종이나 별레가 먹지 않게 옷을 싸두는 데도 썼다. 한책으로 끈을 꼬아 표주박, 바구니, 소반, 찜지단지, 방석, 필통, 자리갈개, 화살통 등을 두루 만들었다. 기난한 이들은 겨울 누비옷에 한지를 넣어 추위를 막았다. 대중국 외교에서도 필수품이었다. 나는 지식을 전파하고 생활을 문명하게 만드는 매개자였다.

나는 삶의 터전마다 관여했다. 수의를 한지에 싸두기도 했고 보통 사람은 염도 한지로 했다. 야, 나는 부자와 서민 가릴 것 없이 도움을 줬다. 그런데 지금 내 처지는 어떠한가.”(1995년 국립민속박물관 간행 『한국의 종이 문화』를 이용한 한지 레이션)

불과 20여 년 전까지 한지는 우리 문화의 바탕이자 필수품이었다. 오랜 세월 천천히 드러나는 장점을 동시대인들이 보지 못했을 뿐이다.

1966년 9월 3일 밤, 경주 불국사 석가탑 앞에서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도둑 세 명이 장비로 석가탑을 들어올리려 했다. 그러나 실체, 다음 날 더 큰 장비를 가져와 탑의 1층을, 다음 날은 2층을 들어올린 뒤 바닥을 더듬어 부처님 사리를 찾았는데 허망. 이들은 곧 검거됐지만 자신들이 한지의 기적을 증명하는 계기를 제공한 줄은 몰랐다.

정부가 차제에 석가탑을 해체에 썼는데 사



8세기 제작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한지로 만든 덕에 우리 유물 판명 과거엔 날 때부터 한지 속에서 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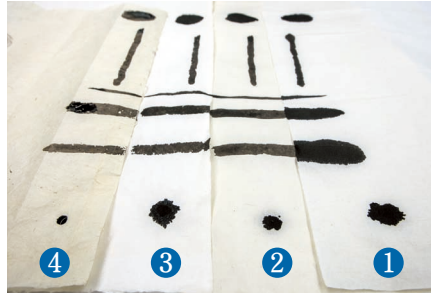
리와 경이 나온 것이다. 가장 오래된 인쇄물인 국보 126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인쇄본이다. 중국이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생떼를 썼으나 2007년 국립중앙박물관은 “종이가 8세기 초 신라 탁종이”라고 발표해 논란은 끝났다. 긴 생명력은 한지 특유의 장점이다. 2012년 5월 대전시 유성구 안성 나씨의 묘에서 출토된 500년 된 편지도 한지의 특징을 과시한다. 만들면 수백 년 가는 한지.

적어도 신라 때부터 1500년 넘게 고액 만족을 줬던 한지는 장점 덩어리다. 전주산업대 윤승락 교수의 ‘기계 한지 제조 및 특성’ 논문(2002년)은 “전통 한지는 딱 섬유를 열기 싫기 고루 얹어 찢거나 잡아당기는데 견디는 힘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제국 말기 러시아 대장성이 편찬한 『한국지』도 “한지는 강인해서 밧줄과 그물을 만드는 데 좋다”고 했다.

생활 속 장점을 보여주는 연구도 있다. 2009년 전북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전통 창호지 창’과 ‘보통 유리창’을 비교했는데 창호지

가 CO₂ 농도를 더 낮추고 환기량은 1.6배 높았다. 2011년 1월 ‘한지 내장재의 친환경적 요소 연구 분석’ 논문은 “유이온 방출은 일반 펄프보다 두 배이며 원적외선도 함도보다 더 높고 항균성도 우수하다”고 했다.

본지 실험도 이를 보여준다. 지난 13일 ①한국 화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국산 화선지 ②의령 산현제 장인의 한지 ③중국산 닥으로 만든 한지 ④순수 전통 방식으로 주문 제작된 김일수 장인의 한지를 대상으로 먹물 번짐을 알아봤다. ④번은 번짐이 거의 없었고 ②→③ 순으로 번짐이 컸다. 화선지의 번짐이 가장 심했다. 잘 만든 전통 한지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지만 화선지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험을 주관한 중앙미술대전 수상자 출신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김호석 교수는 “지금도 서화가의 거의 90%가 일제 때 시작된 화선지를 쓴다. 그런데 실험 결과 한지보다



④ 순수 전통 방식으로 주문 제작된 김일수 장인의 한지, ③ 중국산 닥으로 만든 한지, ② 의령 산현제 장인의 한지, ① 한국 화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국산 화선지

화선지의 수준이 떨어짐을 보여준다”며 “④번 한지는 단원이나 겸재가 썼던 수준으로 도장 침치리를 잘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도침은 방망이로 두들겨 종이를 치밀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한지 고유의 후처리인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다음은 물에 적서 뽀 뒀 뒤 버는 실험으로 질긴 정도를 살폈다. 화선지는 얻겨붙었다. 조 단 침치리를 잘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도침은 방망이로 두들겨 종이를 치밀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한지 고유의 후처리인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다음은 물에 적서 뽀 뒀 뒤 버는 실험으로 질긴 정도를 살폈다. 화선지는 얻겨붙었다. 조 단 침치리를 잘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도침은 방망이로 두들겨 종이를 치밀하고 평평하게 만드는 한지 고유의 후처리인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지난 10월 전북 임실 김일수(66) 장인을 찾았다. 여덟 살부터 한지를 만들어 온 그는 허름한 집에서 산다. 들어가니 부인 강씨(61)가 앉은 탁의 곁집을 벗기고 있다. 식칼로 출자 누른 속이 나온다. 매해 겨울이면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데 힘들어서 요즘 일당 5만원에 사람을 쓴다. 부부는 이날 닥 살기를 했다. 벗질을 대위 만든 재물을 쓰고 황촉규

가 풀여 김씨가 종이를 뜬다. 전통 수작업 한지는 ‘조선왕조실록’의 복본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그러나 사업은 20년 전부터 내리막. 지금은 연매출이 3000만원 정도다.

경남 의령군에서 조그마한 한지 공방을 하는 신현제(67)씨는 16세 때 하루 보리쌀 한 되를 받고 한지를 뜨기 시작했다. 60년대엔 지금 공장 옆을 흐르는 청계 계곡을 따라 산책대까지가 80~90호 한지 공방이 있었다. 한때 재미를 봤지만 지금은 아니다. 가동률 50%에 1년 매출 6000만원. 원료인 닥 값 3000만원과 인부 값을 빼면 자기 인건비를 버는 정도다.

다음으로 ‘규모가 제법 있는’ 경기도 가평의 정지방, 장성우(47)씨가 와병 중인 아버지 장응룡(77·중요무형문화재)씨를 대신해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1800평 땅에 공방이 있어 다른 한지 업체보다 형편이 나아 보인다. 그러나 허덕거린다. 지난해 매출은 3억 원인데 30% 원료비, 각종 비용을 제하면 순익은 6000만원 정도다. 짐을 꾸러가기가 쉽지 않은 수입이다. 그것도 절반 때 얘기다. 이틀간 들러본 한지 업체의 실상은 그랬다. 겨우 숨을 쉬고 있다.

전통 한지업체는 1980년대를 고비로 급경사 내리막에 몰렸다. 최대 기반인 전주에선 93년 22개 업체가 조합을 만들었지만 2002년

을 폐업한 업체는 안동한지”라며 전화를 직접 걸었다. “전통 재물로 만든 한지가 있느냐”고 하자 회사 대표는 “사경지라는 얇은 종이가 있는데 장당 3만원이다. 7000원짜리는 양재물로 만든 종이일 것”이라고 했다. 전통한지에선 양재물을 안 쓴다. 7000원짜리는 1만원이 넘는 데 어떻게 이렇게 싼가. 전자를 달라고 하자 그제야 “비선데... 김씨네 장 지품표시제”라며 1만8000원짜리를 꺼냈다.

그 가운데 “7000원짜리 한지”를 사서 한국 전통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김호석 교수에게 보았다. 그는 “안동에서 유일하게 한지를 제작하는 회사는 안동한지”라며 전화를 직접 걸었다. “전통 재물로 만든 한지가 있느냐”고 하자 회사 대표는 “사경지라는 얇은 종이가 있는데 장당 3만원이다. 7000원짜리는 양재물로 만든 종이일 것”이라고 했다. 전통한지에선 양재물을 안 쓴다. 7000원짜리는 1만원이 넘는 데 어떻게 이렇게 싼가. 전자를 달라고 하자 그제야 “비선데... 김씨네 장 지품표시제”라며 1만8000원짜리를 꺼냈다.

그 가운데 “7000원짜리 한지”를 사서 한국 전통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김호석 교



1 전북 임실의 김일수 장인 부부가 한지용 닥나무를 삶고 있다. 이렇게 삶으면 겉질이 쫄기 쉽고 분된다. 전통한지 제조의 첫 과정이다. 2 한지 장인 김일수씨의 부인 강씨가 삶은 닥나무에서 때난 흙피를 갈로 긁어낸다. 옆에 쌓인 누런 것이 흙피. 전통 한지는 이렇게 손이 간다. 3 가평의 한지공방 ‘정지방’에서 외발뜨기 한지 제조 시범을 보이는 장성우 대표. 조용철 기자

외국산 들어오며 설 자리 사라져 일본 화지는 세계 고급시장 장악 한지의 맥 이어갈 방법 고민해야

파산했다. 일부는 남았지만 생산 기반은 붕괴됐다. 2012년 현재 수제-기계계를 포함해 전국 한지 업체는 26개. 한때 수십 개가 넘었던 한지 업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과 태국 같은 외국산에 밀렸다.

장성우씨는 “80년대는 한지만 소비됐지만 90년대는 중국과의 가격경쟁에서 업체가 다 죽었다”고 말한다. 수제 한지만이 아니다. 기계 한지를 만드는 전북 완주군 ‘천양 P&B’의 최영환 대표(77·중요무형문화재)씨를 대신해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다. 1800평 땅에 공방이 있어 다른 한지 업체보다 형편이 나아 보인다. 그러나 허덕거린다. 지난해 매출은 3억 원인데 30% 원료비, 각종 비용을 제하면 순익은 6000만원 정도다. 짐을 꾸러가기가 쉽지 않은 수입이다. 그것도 절반 때 얘기다. 이틀간 들러본 한지 업체의 실상은 그랬다. 겨우 숨을 쉬고 있다.

전통 한지업체는 1980년대를 고비로 급경사 내리막에 몰렸다. 최대 기반인 전주에선 93년 22개 업체가 조합을 만들었지만 2002년



‘수제한지’, ‘예쁜 한지’ 상표가 붙은 태국산 기계지

인-중개인에게 각각 1%씩 내라 했지만 상인이 거부해 모두 생산자 부담이 됐다. 생산자가 붕괴 되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의 2013년 박사학위 논문도 “한지업체의 월평균 소득은 200만~400만원. 종업원 5명 이하가 62%”라고 지적한다. 영세 가내 수공업 수준이란 의미다.

태국도 한지 시장을 휘젓는다. 최 대표는 “2013년 초 태국은 원료인 동남아 닥을 kg당 8000원에서 1만원으로 확 올렸다. 라오스 같은 생산자의 가격이 뛰었다는 게 이유였다”며 “7년 만에 30%를 기습 인상했는데 대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태국 업체들은 한국의 시장을 면밀히 살핀 뒤 공격한 것이다.

중국과 태국의 공세는 일제 강점기 상황을 연상시킨다. 고려대 송규진씨의 ‘일제하 한지의 생산과 수출’에 따르면 1920~28년 제지의 95% 이상을 조선인이 생산했다. 그런데 한지 명성이 높아지자 중국은 반값 이하로 짝퉁을 만들어 한지 시장의 70%를 장악해 버렸다.

그러나 날 닦만 할 수는 없다. 인쇄·서화용 한지 수요가 줄고 소비자들은 양지(洋紙)를 더 찾는다. 주기환경 변화로 창조자·벽지·장판지가 사라지고 농촌 부업에서 한지가 사라졌다. 환경이 완전히 변한 것이다. 한지의 미래는 어둡다. 2009년 전통 한지 장인은 24개 회사에 65명 있었는데 50세 미만인 23명이고 나머지는 70세까지 고령이다. 사양산업의 특성이자, 세계 고급 수목지(손으로 만드는 종이) 시장은 일본의 화지가 장악한다. 파라·뉴욕의 미술재료상에도 한지는 없다.

지금 한지 업계는 분부 중이다. 전북 전주·익산시를 중심으로 전통 한지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한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진행되거나 마무리됐다. 한지 닥섬유가 개발돼 유아복·내의·양말 같은 상품이 출시됐다. ‘천양 P&B’는 한지 자동차 필터를 개발했다. 한지 남절합, 의류용품, 인공피부, 봉합사, 무균지 등 개발되고 있다. 일본도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한 반도체 절연지에 방탄조끼, 1회용 수술복, 속옷을 개발했다. 잘하면 한지 시장이 712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세발화(gelocalization)라고 불리는 21세기 패러다임에 한지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밋빛 전망을 실현할 주역인 한지 생산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최 대표는 “5년 뒤면 박물관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누가 어떻게 이를 막을 것인가.

청와대 행사에서 대통령은 한복을 입고 한식을 대접하며 한류 음악을 공연한다. 그런데 6대 한복랜드의 하나였던 한지는? 청와대 직으로 하면 2~3명이 6개월 걸린다. 그는 “중국을 꺾을 힘도 없고 특히 수제 한지의 기반은 다 무너졌다”고 한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한지산업부 석자료집』에 따르면 2009년 전체 24개 업체 중 17개가 100명 미만이다. 전북대 김동훈씨

가 있다. 그나마 1934년엔 총독부가 한지에 1, 2, 3, 4 등급을 매겨 품질을 감시하고 규격도 통일시켰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없다. 기계 한지 상황도 못지않다. 시중에서 구입한 ‘수제한지’ 상표의 종이는 ‘전통 방식에 준해 한 장 한 장 정성으로 만들어진 한지’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실제 원산지는 태국이다. ‘수제’라는 구실은 옆의 보풀 때문인데 종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예쁜 한지’는 한지의 기원까지 거짓이 섞였다. 한지 정인철은 이 종이들은 수제 한지가 아닌 수입 기계지라고 한다. 그런 ‘가짜 한지’들은 전통 한지를 고사로 물가치는 공범이다.

이-중개인에게 각각 1%씩 내라 했지만 상인이 거부해 모두 생산자 부담이 됐다. 생산자가 붕괴 되기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인

시집 『중앙SUNDAY-서울 1』 낸 박찬일 교수

우주 멜로디, 중앙SUNDAY서 뽑아 시로 엮어

김현영 기자 whanyung@joongang.co.kr

3월 18일 창간 7주년을 맞는 중앙SUNDAY에서 시어(詩語)를 뽑아내 시집을 펴낸 시인이 있다. ‘시는 말과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점이지대(漸移地帶·transition belt)’다”고 표현하는 박찬일 추계예술대학교 교수(문예창작과).

제목은 『중앙SUNDAY-서울 1』. 모자이크나 플라주를 연상시키는 시집이다. 수록된 시들은 중앙SUNDAY 기사를 분할해 배치한 새로 한 것들이다. 종결어미만 어조와 리듬을 바꾸기 위해 손질했다. 김석준 편집장, 반경환 『예지』 주간, 유안진 시인 등은 이 시집에 대해 “한국 시문학사 속의 기념비적인 시집”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복극염』 수정본 『근대: 이항대립체계의 실제』 『독일 대도시 시 연구』 등 시집 8권, 평론집 5권, 연극서 3권을 낸 시인이자 학자다. 춘천 출신으로 연세대 독문학과(학사·박사)와 독일 카셀대학(박사후과정)에서 공부했다.

중앙SUNDAY는 일요일 아침의 즐거움-시인에게 중앙SUNDAY는 무엇인가. 어떻게 애독자가 됐다.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일요일자 신문, 주간지다. 주변 분들, 특히 지식인·예술가들에게 많이 권유하고 있다. 철학·역사·정치학을 망라하는 매체이기에도 보다 넓은 문화와 예술을 지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개인적으로 일요일의 낙(樂)이다. 어느 날 집안에 중앙SUNDAY가 배달됐다. 중앙일보 구독자니까 지국에서 한번 보라고 넣어준 듯하다. 즉시 구독 신청을 했다. 내용에 비해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다.”

“시집을 구상한 계기는.

“늘 그만그만한 기존 시집들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겼다. 속되고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작정하고 벌인 어 떤 먹이는 것’이다. 프랑스 예술가 마르셀 뒤샹(1887~1968)은 남성 소변기를 전시장에 갖다 놓고 ‘샘!’라는 미술품으로 둔갑시켰지 않았는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었다. 뒤샹은 머리로 만든 게 개념예술의 시대를 본격적으로 개막했다. 『중앙SUNDAY-서울 1』도 넓게 보면 개념예술의 범주에 속한다. 남의 것인 기자·학자의 글, 카피에디터의 제목 등을 내 것이라도 우기는 식이다. 뒤샹의 ‘샘’과 마찬가지로 『중앙SUNDAY-서울 1』도 이런 의도적인 ‘우기기’다.”

“이런 최초의 시집은 한국에서나 전 세계에서 드물지 않은가.

“국내 최초다.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나 단행본 시집으로서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다. 한두 편 정도의 시가 이런 형식으로 나왔을 수는 있다.”

“산문 형식의 신문에서 시가 나올 수 있다.

“근원적인 전언인 ‘멜로디’를 노래하는 시어(詩語)는 시인의 머리에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사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신문을 포함, 철학서·교양서·에세이 등 모든 텍스트에서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드러내는 멜로디를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 중앙SUNDAY에서 멜로디성이 있는 내용을 올려 놓았다.”

“멜로디란 ‘회화’에서 신문지를 올려 붙이는 플라주(collage) 기법으로 시어를 연결했다. 티끌 일곱 개를 짜집기 하니 북두칠성이 드러나듯 『중앙SUNDAY-서울 1』에서는 국자가 보이게 됐다. 플라주가 회화뿐 아니라 문학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멜로디란 ‘이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에 차라리 무(無)가 아닌가.”

“인류는 과연 기원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수만 가지제라고 한다. 그런 ‘가짜 한지’들은 전통 한지를 고사로 물가치는 공범이다.



시 형식의 끊임없는 모색으로 유명한 박찬일 교수는 “제2권의 출간은 장담할 수는 없다”며 “독자로써 계속 밑줄을 차가며 ‘언어 중의 언어’를 매모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는 말과 세계를 잇는 중간 지대 새 시집은 플라주 활용한 오마주 평단에선 “한국 시문학의 기념비”

박 교수는 이처럼 복수의 기사에서 추출한 문장들을 시의 골격으로 삼았다.

“멜로디란은 음악적 요소, 플라주라는 회화적 요소가 만나는 것의 의미인가.”

“탈경계(脫境界). 스위스 화가 파울 클레(1879~1940)는 회화와 음악의 만남에서 탈경계를 이야기했다. 예술사뿐 아니라 현대 우주의 합의도 탈경계다. 종래를 만나면 무엇이 된다. 이 세계는 과연 무엇이. 빛이 직선으로 계속 갈 수 있다면 우주는 무한하다. 빛이 꺾인다는 것은 우주가 유한하며 다만 경계가 없을 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무경계(無境界)는 탈경계를 예고한다.”

“시인은 사형장에 몰타는 우주의 기록자이다. 이 시집의 철학적·시대적 배경은?”

“오스트리아 미술사가 알로이스 리글(1858~1905)의 관점을 바꾸어 말한 ‘몰락하는 시대’의 예술가들은 몰락하는 예술을 의욕한다. 선율도 배경을 요망할 수 있다. 예술가들이 작품의 완성도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다. 부채사화는도 상징되는 자본주의의 위기, 새로운 메론 종에게 패배할 수 있다. 온난화도 우리의 적수다. 결과가 파국일 수도 있다. 우리가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클라주 기법을 구상한 배경은? 몽타주와 다른 점은?”

“이 시집은 중앙SUNDAY에 나오는 모든 인물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하다. 플라주는 전체 인용, 몽타주는 부분 인용이다. 문을 포함, 철학서·교양서·에세이 등 모든 텍스트에서 인간과 우주의 근원을 드러내는 멜로디를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 중앙SUNDAY에서 멜로디성이 있는 내용을 올려 놓았다.”

“시인의 삶은 ‘진리가 없을까 조금 더 가까운 식(식)’이 구경한다”고 생각한다. 몰락하는 시대는 진리가 더욱 절실했던 시대다.”

“『복극염』 수정본 『근대: 이항대립체계의 실제』에서 나오는 시들은 제목이 위가 아니라 밑으로 가 있다.

“제목이 앞에 있는 것이 어쩌면 비정상적인데, 글을 쓰고 나서 한 마디 토를 다는 것, 그대 재물이러만 꼭 위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제목도 시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목에도 멜로디·선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제목이 위에 있을 필요는 정말 없다.”

“시인은 어떤 사람인가.”

“정열과 사명감 같은 것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행복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한숨으로부터도 해방된 자유인, 성가주의나 스캔 같은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별종이다. 하이데거가 따르면 존재는 인간에게 맡을 걸러고 있다. 시인은 존재가 말하는 멜로디를 알아듣고 받아 적는 서기(書記)이자 예언자이기도 하다.”